

대법원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¹⁾위반(사기)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2. 홍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에 대한 특정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위하여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연기 또는 유예 청탁 대가로 홍보계약을 가장하여 1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법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홍보대행업을 영위하는 (주)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임
- 피고인은 산업은행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송금받음 ⇒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은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사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 또는 유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호그룹으로부터 청탁 및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연기 또는 유예에 대한 대가로 33억 원 상당

1) 이하 ‘특경법’이라고 함

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11억 원을 송금받음 ⇒ 특경법 위반(사기)

■ 원심의 판단

- 변호사법위반 ⇒ 유죄 (징역 2년 6월, 21억 3,400만 원 추징)
- 특경법위반(사기) ⇒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홍보컨설팅 계약에 남상태의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 청탁 또는 알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금호그룹측을 기망하여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일부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함
-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따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추징과 관련된 기존의 법리를 따름 ⇒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함

3. 판결의 의의

-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받아들인 사례임